



관광하고, 피서도 즐기고... 26일 제주시 구좌읍 만장굴을 찾은 관광객들이 냉장고 같은 시원한 동굴을 둘러보고 있다. 이상국기자

서귀포시 표선면 일대 국유림 조성

나무 심어내기·식생 정비

서귀포시가 제주 숲의 가치 증진과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을 위해 국유림 가꾸기에 나선다.

시는 국유림의 경제적·환경적 가치를 높이고, 품격 높은 숲으로 육성하기 위해 3억4200만원(산림청 국비)을 투입해 국유림 가꾸기 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오는 8월부터 12월까지 표선면 가시리 일대 16필지에 대해 사업을 전개한다. 기존에 조성한

산림청 국유림은 152필지·7938ha 규모다.

시는 침엽수림의 줄기가 굵고 곧게 자라도록 우량한 나무 주변에 있는 생장이 나쁜 나무 등을 솜아 주고, 양질의 목재 생산을 위해 가지치기 및 하층식생을 정리하는 임내 정비를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 사전 전문가에 의해 숲을 진단하였으며 실시설계과정을 진행중이다.

시는 지난해 국유림 103ha에 사업비 1억2000만원을 투자해 숲가꾸기 사업을 전개했다. 백영탁기자

지방 공기업 수장 물갈이 '주목'

행안부, 29일 2021년 지방 공기업 경영평가 발표
 오영훈 도정 기관장 신임 여부에 적잖은 영향 전망
 일부 공기업 수장 자진 사임... 인선·공모 등 진행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기업의 2021년 경영평가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달 말 발표 예정인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현재 임기를 남겨두고 있는 지방공기업 수장의 물갈이 여부도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빠르면 이번주에 제주개발공사와 제주관광공사, 제주에너지공사 등 지방공기업의 2021년 경영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지속가능경영과 경영성과, 사회적 가치

분야 세부지표에 대해 지표별 달성도를 검증하는 것으로, 매년(가·마·등·라) 평가하고 있다.

2020년 경영평가에서 제주개발공사와 제주에너지공사, 제주관광공사는 '다등급'을 받았다. 광역상수도 부문에서 제주자치도는 전국 9개 지방공기업 가운데 가장 낮은 '라등급'을 받았다.

도내 3개 지방공기업 가운데 제주에너지공사 황우현 사장은 민선 8기 제주도정의 출범을 앞두고 지난달 말 사임했다. 이에 제주에너지공사 임원추천위원회는 다음달 1

일부터 10일까지 신임 사장에 대한 공모를 진행중이다.

이에 따라 전임 도정에서 임명된 2개 지방공기업 수장이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김정학 제주개발공사 사장의 임기는 2023년 6월 15일까지, 고은숙 제주관광공사 사장의 임기는 2023년 10월 29일까지다.

업무의 연속성과 조직의 안전성을 고려할 경우 이들의 법적 임기를 보장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부실한 경영 성과를 보이고 있는 기관장의 임기보장은 오히려 조직과 도민들에게 피해를 안겨줄 우려가 높다.

이 때문에 이번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가 이들의 거취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공석인 제주특별자치도 출

자·출연기관장에 대한 인선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제주국제컨벤션센터는 오는 8월 5일까지 신임 대표이사 공모를 진행하고 있고,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과 제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인선도 조만간 마무리될 예정이다.

제주의학연구원장 공모는 8월 초 실시할 계획이다. 한의사 출신 2명이 후임 원장으로 거론되고 있다.

임기를 4개월 남겨두고 이달 자진 사퇴한 태성길 제주테크노파크 원장의 후임 공모는 고시개정이 필요해 10~11월쯤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상협 제주연구원장은 임기(2020년 9월 1일~2023년 8월 31일)를 남겨두고 있으나 다음달 사직의사를 내비쳤다. 고대리기자

전쟁으로 사료값 폭등
 제주시, 사료 구매자금 지원

제주시는 '특별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에 총 249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사료 원료 수급 불안 등으로 사료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다. 실제 지난 5월 기준 도내 사료(공장도)의 kg당 가격은 ▷육우 531원 ▷젖소 610원 ▷양돈 720원 ▷양계 561원으로 2020년 대비 25~31% 상승했다.

지원 비율은 용자 100%, 금리 1.0%이며, 3년 거치 2년 분할 상환이다. 지원 축종은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 기타 가축(사슴, 말, 산양, 토끼, 메추리, 꿩, 타조, 꿀벌)이다. 8월 초부터 사업장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송은범기자

'재난지원금' 1인당 10만원 내달 지급

내달 1일부터 온라인 신청... 8일부터는 읍면동 접수
 지급 방식은 탐나는전·현금 놓고 도-도의회 입장 차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8월부터 도민 1인당 10만원씩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는 가운데, 탐나는전과 현금 등 두가지 지급 방식을 놓고 제주도와 도의회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향후 최종 결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전도민 1인당 10만 원을 탐나는전 카드형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코로나19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이하 생활지원금) 지급계획을 지난 25일 오후 10시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하지만 26일 열린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 예산안 심사에서 지급

계획을 먼저 홈페이지에 공개한 것과 관련 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르자 도는 해당 공고를 삭제했다.

온라인 신청은 내달 1일부터 시작된다. 시행 첫 주엔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되며 내달 6일부터는 요일제가 해제된다. 온라인 신청 시 성인(200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은 개인별 신청이 원칙이며, 신청자 본인 명의로 신청해야 한다. 미성년 자녀는 동일 주소지 세대주 명의로 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도·행정시 홈페이지 또는 지원금 지급 전용 홈페이지·앱을 이용한다. 내달 1일 9시부터 9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은 내달 8일부터 시작되며, 역시 시행 첫 주 요일제가 적용된다. 이 경우 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 수령할 수 있다. 방식은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한 후 탐나는전(카드형) 수령대리인 신청인 경우 본인 신분증과 위임장, 관계증명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당초 도는 1인당 10만원을 탐나는전 카드형으로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도의회 지적에 따라 공고를 보류한 뒤 지급 방식을 도의회와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이태훈기자

제주 코로나19 신규	1530
잠정집계 26일	누적 26만2461
17시 기준	

번잡한 도시와 일상을 떠나
 제주에서 즐기는 여유와 편안함

여행의 행복을 맛보다
 - 나를 찾아가는 최고의 여행지, 서귀포!

Best Travel
SEOGWIPO

